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5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는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와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녹비 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유기농지, 무농약 농지, 일반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당 유기농지에 200만원, 무농약 농지에 150만원, 일반농지에 1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녹비 작물로는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종자가 지원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기 농지, 무농약 농지, 일반 농지 순으로 선정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총력

고창군은 최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점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3개소) 운영을 통한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독, 동립저수지 통제초소(3개소) 운영으로 통제 및 소독지원, 공동방제단(3개반)과 그 외 방제차량(3대) 등으로 가금농가와 동립저수지 주요 진출입로 소독, 가금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134호/5,180포) 등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성료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주제… 다양한 지역서 활동한 역사 재조명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을 맞이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 공동 주관하에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이란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신영우 소장의 기조강연과 안동대 신진희의 '경상도 칠곡·군위·의흥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발표로 시작한 학술대회는 유바다(고려대), 김양식(청주대),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이영호(인하대 명예교수/좌장), 고석규(목포대 명예교수), 조재곤(서강대), 배항섭(성균관대), 최원희(정선문화원)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들과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도, 충남, 충북, 강원도 등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해 조망하고,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비교·분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넓은 시각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을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 군청 앞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였으며, 내년에도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서훈과 관련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철 이사장은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로, 이번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백 이사장은 "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을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정신을 계승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와 통찰을 나누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 선정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공급…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읍샘골농협이 운영주체로 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읍샘골농협은 5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분야의 원활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166농가에 62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까지 499명을 농가에 배치했다. 내년에는 188농가가 총 831명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무부의 배정 인원 확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덜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안내·집중 홍보

미부숙 가축퇴비 농경지 살표 행위 집중단속

정읍시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과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축산 농가의 경우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해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11월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채취하여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퇴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읍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퇴비 기준, △부숙도 검사기관, △퇴비 부숙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팜플렛 제작해 11월 초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수매 상황 점검 · 생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 농업인 격려 등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5일 덕천면 농협창고를 찾아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을 점검하고,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1만3,470톤으로, 40kg 기준 33만6,750포대에 달한다. 지난달 10일부터 영원 RPC, 태인 DSC, 화호 DSC 등에서 산물벼 및 가루쌀벼 2,197톤을 매입 완료했으며, 일반벼 1만134톤은 이달 7일 고부면에서 시작해 이달 말일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신종진, 새청무, 참동진 3종이며,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40kg 단위로 환산해 책정된다.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 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 수발아 발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확과 출하에 애써주신 농업인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

희망 업체 22일까지 모집… 최대 3억원 지원

정읍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 업체를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스마트 HACCP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당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으로, 주요 원료로 전북산 농산물을 30~50% 이상 사용하고, 운영 실적이 1~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이 마감되면 12월 중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예비 선정자를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063-539-62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울산광역시 중구, 친선도시 교류행사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영길)를 방문해 친선도시 교류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양 도시가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울산광역시 중구가 부안을 방문해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친선 축구경기 및 화합행사를 추진한 이후 세 번째 교류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사회단체장 및 직원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지난 5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지회장 권명식)와 울산중구새마을회(지회장 정태식)은 쌀값 폭락에 따른 소비 진작과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구입해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지역에 판매하도록 기획된 새마을 쌀사랑 운동 부안쌀 '천년의 솜씨' 10kg 200포(800만원 상당) 쌀 전달식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